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재산상 손해 사례 | 특정제품이 효과없다고 단정한 보도, PR보도로 조정성립

모 방송사는 정보오락프로그램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면서, 강화마루 제품이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강화마루를 생산·판매하는 A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이 다른 바닥재에 비해 바닥소음 감소 및 층간소음 차단에 효과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층간소음 차단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PR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개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 300만 원 배상

모 방송사는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보도하며, 신청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상장과 수료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학번 등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중파 화면에 그대로 노출했다. 신청인은 방송 이후 신원불명의 남성들로부터 음란전화와 와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및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길자 _ 5월호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60대의 나이에 히말라야 산행에 오를 김봉수 위원의 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핑계로 너무 움츠렸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민씨의 '엄마와 미역국'을 읽고서, 작년에 아이를 출산한 막내딸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주세요.

정경석 _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언론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5월호에는 손지에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의 인터뷰가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이미지 홍보와 K-Culture의 글로벌 전파에 있어 아리랑TV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잘 인지하게 되었고, 지구촌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언론인이 키워준다는 점 잘 역설해 주신 것 같네요. 참언론인의 본분을 느끼고 그 해안을 키우는 데 [언론  사람]이 많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말숙 _ 낭만주의의 대표작가 워즈워스에 대한 '시간의 점' 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가 멋진 자연 풍경을 보았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삶의 기운을 되찾았다는 글은 제 경험 또한 생각나게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인생의 크나큰 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속리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자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바로 옆 기사인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는 산에 핀 봄꽃들에 취해 간과하기 쉬운 무릎관절 건강을 돌아보게끔 했고, 60대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신들의 세계' 히말라야 등반기는 위원의 '원초적 본능'뿐만 아니라 제 본능 또한 두근거리게 만드는 군요. [언론  사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음호도 기다릴게요.